

# 전공학자들이 제시한 학문의 자기소개

소광희 외 지음 「현대의 학문체계」

이기상

외대 교수·철학과

우리는 현대를 '기술과 과학의 시대'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 있다. 그만큼 기술과 과학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까지 침투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 아니라 우리의 사유까지도 규정하고 있다. 과학문명의 기기가 없이는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과 과학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제 더이상 과학 내지 학문은 일부 선택된 엘리트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한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확대된 대학교육의 기회일 것이다. 그러한 과학 내지는 학문의 수준에 따라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가나 후진국이나 하는 나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 국제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워 현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려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대학교육에 사활을 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거기에 뒤질세라 우리나라의 전국민은 대학입학에 모든 것을 걸고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닦아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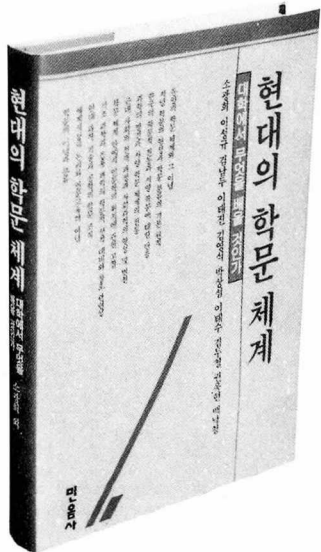
이러한 시점에서 대학이 무엇이길래, 대학에서 한다는 학문이 무엇이길래 우리 모두가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단 말인가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림직하다.

### 정보·지식 차원의 '학문론'에 그친 아쉬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일차적으로 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교수들이 모여 집필한 "대학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는 부제가 달린 「현대의 학문체계」라는 책은 이러한 의미에서 세인들, 특히나 해당 청소년들과 그들 부모들의 관심을 사기에 족하고도 남는다. 그 꿈의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며 나는 거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 얼마나 가슴 조여오는 벽찬 물음인가!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의 차원은 더 깊은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21세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21세기에는 마침내 '선진국'의 일원이 되고야 말겠다는 국가적 염원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국민들로 하여금 모든 분야에서 그를 위한 만반의 노력을 경주하게끔 하고 있다. 되돌아보건대 해방 후 지난 50년간은 그야말로 그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후진국'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시기였다. 100년이나 뒤진 생산력의 여건, 산업화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려온 반세기였다. 우리의 모든 물음 내지 가르침은 근



대화, 산업화, 과학화, 기술화으로 집중돼 있었으며 그것은 다른 말로 '서구화'였다. 우리의 이러한 배우고 물은 '學問'의 길은 국민적인 학구열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으며, 이제 그 성과로 선진국에의 진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학문의 길'에 문제가 없었는가를 제기한 저술이 있어 학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준 것이 얼마 전의 일이다. 그 책의 저자 조동일교수는 우리 학문이 "학문의 주인이 누렸던 자랑스러운 자리를 잃고, 학문의 나그네가 되고, 학문의 노예로 전락하기까지"한 우리의 상황을 개탄하며, "그 모든 불행은 서양학문에 주체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진단했다. 독자들은 이러한 '학문론'에 대한 논쟁에 「현대의 학문체계」라는 책이 일조하기를 기대하게 된다.

독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현대의 학문체계」의 집필자들은 그 책의 발간 의의를 "우리나라에 현대적 대학이 설립된 지 반세기 만에, 아니 우리나라의 학문 사상 처음으로 학문 일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데" 두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학문론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학문체계가 수립되고 그 바탕 위에서 마땅한 교육 편제상의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 학문을 크게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으로 나누고, 다시 자연과학을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내지는 기술공학으로 나눈다. 이러한 학문의 분류가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학문의 이

대학학제개편론이 최근 대두되고 있다.

교육편제상의 개선에 앞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학문체계가 수립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문일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학문론' 내지 '학문학'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할 터이다.

최근 출간된 「현대의 학문체계」는

학문론 논의의 첫걸음이란 의의를

지니지만 아쉬운 점도 많다.

념은 무엇인지, 그러한 학문의 이념 내지는 체계화가 동양과 서양에서 어떠한 변화의 역사를 거쳐왔는지 등을 물음으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 학문론 논의 활성화돼야

이러한 일반의 기대를 이 책은 충족시키고 있는 셈이다. 각기 자기 분야에서 자신의 학문분야를 그 대상과 방법 내지는 지향에 있어, 역사에 있어 소개 하고 있다.

학문이 무엇이고 그것이 동양과 서양에서는 어떤 이념 내지는 원칙 아래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학문이 어떤 방법론적 논쟁과 경위를 거쳐 현대와 같이 다양한 분과로 분화돼 나왔는지, 그 분화된 학문분야에서 다루는 대상은 무엇이며 그것이 다른 대상과는 어떤 관련이 있으며, 방법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왜 그러한지 등등에 대해 해당분야의 권위있는 전문학자들이 자세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정보적 차원'에서 분명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들이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리나라의 학문 사상 처음으로 학문 일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계기로 이러한 "학문론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학문 체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독자가 있다면, 그는 책을 다 읽고나서 실망스러운 마음을 한동안 달래야 할 것이다.

이성규교수가 첫번째 글을 시작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학문'은 단순한 '읽'이 아니라 한 사회가

'연구, 교육,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설정한 지식의 체계적인 집합이며... '학문'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및 체계는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뿐 아니라 그 사회가 지향하는 이념의 목표와 성격, 그리고 그 이념의 담지자인 지식인의 존재 형태와 성격에 따라 크게 규정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도 우리의 현금의 '학문적 상황'이 이 책에서 반성되고 있음을 기대해볼직 하다. '학문론'에 대한 논의가 단순한 '지식'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서는 학문에 몸담고 있는 학자들의 학문성의 수준에 걸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 논문이 한 편 있다. 이태진 교수는 「한국의 학문적 전통과 서양 학문에 대한 반응」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의 학문 체계는 거의 서양 것에 의존하고 있다. 서양 것을 그대로 따라 배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 서양의 체국주의가 지구를 휩쓸면서 그 물질문명의 우위가 학문적 우위를 함께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그는, 서양 학문이 수용되기 전의 우리의 전통적 학문과 사상의 특징이 무엇이며, 그것이 서양 것의 수용 과정에서 어떤 형상으로 변하고, 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고 있다.

백낙청교수는 「세계시장의 논리와 인문교육의 이념」이라는 글에서 한국 대학에서 "인간다움의 연마"라는 전통적 대학의 이념이 쇠퇴 내지는 상실돼나가는 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대학의 위기"를 보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서는 '인간다움'과 '진리'에 대한 본질적인 새로운 모색이 있어야 한다고 여기며, 우리의 인문교육이 더 이상 서양을 추종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한다.

'학문론'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저자들이 밝히듯이 그 시작의 첫걸음을 떼었다는 데 그 큰 의의를 두어야겠다. 이것이 일과성의 논문발표로 끝나지 않고 학문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학문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기이해'를 위한 거둬담의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그 소임을 다하는 셈일 것이다.